

# “일자리 지사 돼 ‘돌아오는 전남’ 만들겠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선출 김영록 전 농림부장관

진정성 알아준 도민·당원에 감사

전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구문제

저출산·고령화 해결 실질적 대책 필요

청년 희망 ‘10만 인재 프로젝트’ 추진

‘박빙의 승부’ 끝에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영록 전 농림부장관은 “전남도민과 당원들이 진심과 경쟁력을 알아주셔서 승리했다”며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후보 모두가 힘을 모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담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축하한다. 경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나? ▲출마가 다소 늦어지면서 도민들에게 경쟁력을 알릴 만한 시간이 부족했다. 그나마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주기 시작하고 이어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감사하다. 경선 막바지에 지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혼탁으로 흘렀다. 정말 괴롭고 힘들었다. 혼탁 경선은 예비후보 스스로는 물론 집권여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뒤늦은 출마인데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유가 뭐라 생각하나? ▲도민과 당원들이 저의 경쟁력과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승리 요인이다.

차별화된 강점은 세 가지다. 먼저, 누구보다 ‘힘있는 후보’다. 문재인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을 지내는 등 국정경험과 함께 청와대·정부에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전남의 현안과 과제를 청와대·정부부처와 직접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고, 각종 국회예산 확보 등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두번째는 ‘준비된 후보’다. 전남도에서 강진·완도 군수, 경제통상국장, 행정부지사를 지내는 등 오랜 공직생활을 했다. 전남의 문제와 현안, 장·단점 등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전남도는 이낙연 총리가 떠나면서 1년여 공백이 불가피하다. 적을 기간이나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세번째는 ‘깨끗한 후보’다. 현미경 검증으로 알려진 국무위원 청문회를 전혀 문제 없이 깔끔하게 통과할 만큼 어떠한 비리도 없다. 이런 점들을 인정해준 것 같다.

-전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해결책은? ▲인구문제다. 전남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전남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도 팍팍하다는 것이다. ‘일자리 지사’가 돼 전남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전국 최고의 일자리를 마련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 전남을 대 중국·동남아 전진 기지로 삼아 해양관광 및 물류, 연안형 산업지대 조성, 청년창업 등 맞춤형 일자리 늘리기에 모든 힘을 쏟을 각오다.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전남도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시행하고, 지역사회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전남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큰 그림을 들려달라. ▲문재인정부의 탄생으로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잡은 ‘전남의 꿈’을 저버리지 않겠다. 전남발

전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촛불혁명의 완수를 뒷받침하겠다. 전남의 자산은 천혜의 자연자원, 풍요로운 농토,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은 전남의 청년들이다. ‘10만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의 인재를 더 많이 키워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갈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전남발전을 선도할 제2·제3의 김대중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겠다.

-전남만 홀로 살아갈 수는 없다. 광주 등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이 있나? ▲군공항 이전과 한전공대 입지 등 광주시와 상생협력해야 할 문제가 쌓여있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이다.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라는 대전제 아래 대화하고 협의하겠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대화하고 논의하고 협의해 결과를 도출해내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해당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하겠다.

무안공항은 조성 당시부터 광주공항과의 통합을 전제로 건설됐다는 점에서 광주공항 이전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다만, 군공항 이전이 문제다. 광주시에서는 민간공항과 묶어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아직 어떠한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전 예정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심할 수밖에 없다. 광주와 전남이 상생 차원에서 관련 기관은 물론 이전 예정후보지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전 후보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서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다면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한전공대 입지는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시와 면밀하게 준비하고 솔직하게 대화해 나가겠다. 전력·에너지분야 공기업이 집적화하고, 성공적인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전공대 설립이 꼭 필요하다.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인 실리콘밸리, 중관촌은 그 중심에 스탠포드와 칭화대 같은 연구중심의 대학이 있다. 한전공대도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와 인접한 나주지역에 입지해야 산학연 협력체제를 통한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도전적인 인재들이 벤처기업을 만들어낼 것이다.

-늦게 출마하면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본선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나갈 계획인가?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겸허한 자세, 새로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 끝까지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 특히 지금까지 내용은 정책과 공약을 보다 세심하게 가다듬어 실현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시켜겠다. 이번 선거는 혼자만의 선거가 아닌 민주당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 모두가 함께하는 선거다. 특히 전남발전,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중요한 선거다.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 성원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北 비핵화 조건 주한미군 철수 제시 안해 정전체제 종식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문대통령 언론사 사장단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미 간 적극적인 대화 의지 속에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회담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에서 “남북정상 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어 북미 정상회담도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하며,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며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남북미가) 비핵화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과거 많은 분이 예상했던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확산 금지나 동결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 하고 미국도 그 선에서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예측했지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라며 “그 점이 확인됐기에 지금 북미 간에 회담하겠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될 경우 평화체제를 한다든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또는 그 경우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돕는 식의 것들의 원론적인 합의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파문에 싸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김경수 의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경남지사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애초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남도청 앞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3·15 민주주의, 총선탐 등을 참배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당 안팎에선 김 의원이 불출마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이 불출마를 하게 될 경우 여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 자신에게 제기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택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정정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경남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로 날을 지새는 일부 야당의 모습을 보며 이 구렁텅이 속에서 경남의 변화와 미래를 이야기할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다”며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추경 예산조차 발목이 잡혀 있다.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를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것”이라며 “다시 경남으로 돌아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김영록 걸어온 길 정통행정관료 출신...39세 강진군수 부임후 전남도·일선 시군 두루 근무

치열한 1차 경선과 결선투표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영록(63)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행정관료다. 특히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근무한 경험이 풍부해 전남도정을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가 고향인 김 후보는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전남도청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내무부를 거쳐 1994년 39세의 나이로 강진군수에 부임해 이듬해에는 고향인 완도군수를 역임하는 등 관선 군수

를 두 차례 지냈다. 군수시절, 단 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섬 마을까지 방문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친 것은 유명한 일화로 꼽힌다.

전남도에서는 경제통상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을 거쳐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이후 18대 총선에서 해남·진도·완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의원 재임기간 주로 농식품위원회와 농해수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농도 전남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에 밀려 낙선했으나,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완도 출생(63세) ▲광주제일고 ▲건국대 행정학과 ▲미국 시리큐스대 맥스웰대학원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21회) 합격 ▲강진군수 ▲완도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 ▲농림식품부 장관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